

2023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결과자료집

Content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소개	04
2. 한눈에 보는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08

3. 세부사업

3-1. 직업역량강화/지역상생 확대	12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굿모닝 예술로>	13
부산형 예술인 산학협력 체계구축	18
3-2. 예술인 사회안전망 지원	20
부산예술인 <행(정)복(지)플랫폼> 운영	22
예술인 컨설팅매칭 <아이컨택> 운영	28
예술인복지퍼실리테이터 운영	32

3-3. 예술인 창작환경 지원/불공정관행 개선	34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36
예술인권리보장 안내(교육) 및 캠페인	38
예술인생활안내서 발간 <알! 부산한 예술생활>	44
3-4.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46
3-5.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66

4. 언론보도	70
---------	----

5. 오시는길	74
---------	----

0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소개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

Busan Artists
Welfare Support Center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지역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열악한 창작여건과 생활 실태를 개선하고자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 사업과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창작 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결과자료집

BI 소개

부산 바다의 일출과 도시를 에워싼 아름다운 산의 정경들을 조형적으로 부합한 형태이며, 예술가들의 느낌을 가진 색들의 조화를 창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B, A, W, S, C의 약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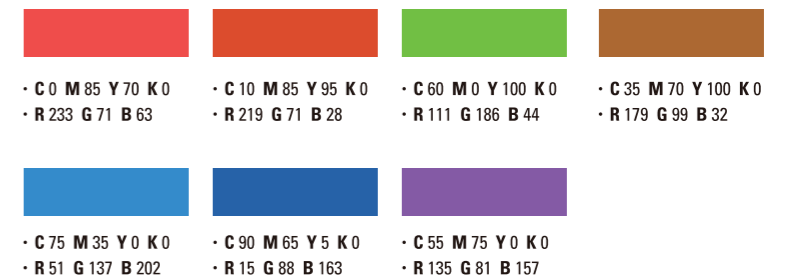


Signature



05

Color System



0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소개

비전 및 핵심가치

비전 예술인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든든한 문화도시 부산

목표 및 추진전략

예술인이 존중받는 부산

- 예술인 권리 보장 제도적 지원
- 예술인 정책 참여기회 보장
- 예술인 맞춤형 정보

예술인이 살기 좋은 부산

- 사회보장제도 예술인 수급 확대
- 예술인 생활안전망 강화

예술하기 좋은 부산

- 예술활동 기반 구축
- 예술인 전문 역량 강화
- 예술활동 장애요인 완화

예술이 힘이 되는 부산

- 예술생태계 내 유통, 향유 기반 강화
-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산

센터사업 안내



직업역량강화/지역상생 확대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로>
부산형 예술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



예술인 사회안전망 지원

부산예술인 <행(정)복(지)플랫폼> 운영
예술인 컨설팅매칭 <아이컨택> 운영
예술인복지퍼실리테이터 운영
예술인복지지원센터홈페이지 운영



예술인 창작환경 지원/불공정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예술인권리보장 안내(교육) 및 캠페인
예술인생활안내서 발간 <알! 부산한 예술생활>

-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연혁

2011. 11. 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 11. 1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
2012. 11. 16.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
2013. 10. 30.	부산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14. 10. 31.)
2015. 5. ~ 9.	부산예술인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 용역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3개분야 19개 과제)
2016.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위탁
2016. 11. 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MOU 체결 (지역예술인 복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2017.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추진(7개사업)
2017. 2. 28.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식
2017. 6. 8.	한국저작권위원회 MOU 체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예술인 권익 신장을 위한 업무협약)
2018.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추진(7개사업) 부산예술인실태조사 용역
2019.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추진(8개사업)
2020. 6.	예술인컨설팅매칭 시스템 '아이컨택' 구축
2020. 7.	BI개발
2020. 10.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2021.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추진 (10개사업)
2022.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추진 (10개사업)
2023.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추진 (10개사업)

02 한눈에 보는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별로 보는 부산예복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등 예술직무 경력 개발과 참여 기업의 예술활동 결과물을 통한 사회 공헌 및 기업 가치 상승, 조직 역량 강화
- 참여기업·기관(마을) 발굴 및 기업과 예술인을 '1:1~2'로 매칭한 협업 프로젝트 진행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로(협력형)>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등 예술직무 경력 개발과 참여기업의 예술활동 결과물을 통한 사회 공헌 및 기업 가치 상승, 조직 역량 강화
- 참여기업·기관(마을) 발굴 및 기업과 예술인을 '1:5'로 매칭한 협업 프로젝트 진행



부산형 예술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

- 지역 예술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진예술인 활동 발판 마련
- 예술대학 6곳 협력 체계 구축
(경성대, 동서대, 부산대, 부산여대, 신라대, 영산대)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사례 접수를 바탕으로 상담, 의료지원, 법률자문,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홍보



예술인권리보장법 교육(안내) 및 캠페인

- 예술인권리보장법(2022.9.25)시행에 따른 사업운영
- 부산 예술단체 대상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 부산 문화예술인 권리보장 및 문화조성을 위한 자조모임지원



예술인생활안내서 발간 <알! 부산한 예술생활>

- 창작, 생활, 복지, 일자리 종합 안내서 발간 및 배포
- <알! 부산한 예술생활> 1호, 2호 발간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 권역별 행정(정)복지플랫폼 조성(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중구)
- 퍼실리테이터 파견 후 부산예술인 대상 예술인복지사업 안내 및 대행서비스 진행



예술인 컨설팅매칭 <아이컨택>

- 지역예술인이 창작활동에서 겪는 다양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원하는 컨설턴트와 1:1 전문 컨설팅 진행
- 바로가기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및 퍼실리테이터 운영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공간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홍보 및 안내
 - 지역예술인 복지지원 매개 역할 수행
- 퍼실리테이터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지원금 등) 신청 대행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참여 예술인의 문제해결 및 갈등관리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 도심 속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여 예술인의 창작 공간 마련
-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소통하는 시민문화 향유공간으로 운영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 부산에서 활동한 예술인의 창작물과 삶을 아카이빙하여 역사적 자료 구축
- 아카이빙자료를 활용한 부산발 콘텐츠 제작 및 발표의 초석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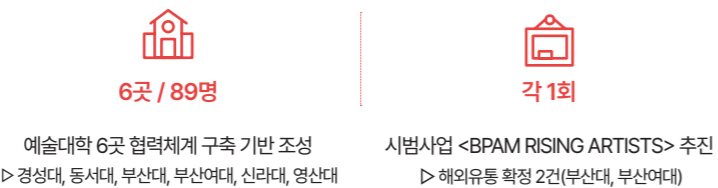
02 한눈에 보는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숫자로 보는 부산예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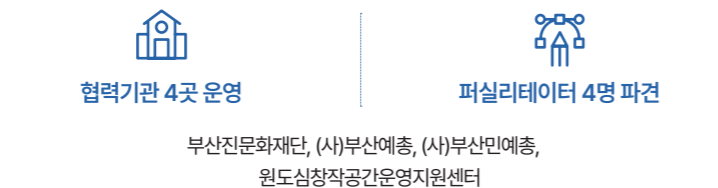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굿모닝 예술로(협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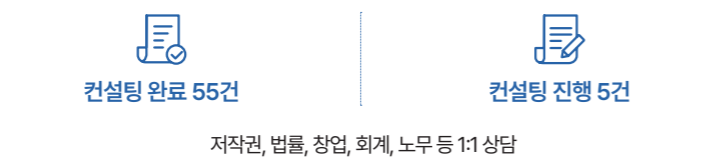
부산형 예술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



부산예술인 <행(정)복(지)플랫폼>



예술인컨설팅매칭사업 <아이컨택>



예술인복지 퍼실리테이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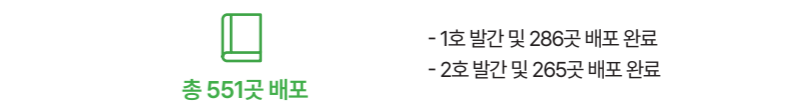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예술인권리보장 안내 및 캠페인



예술인생활안내서발간 <알! 부산한 예술생활>



월별로 보는 부산예복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운영											
예술인컨설팅매칭사업<아이컨택>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운영 (실운영기간:7월 - 12월(6개월))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실운영기간:6월 - 11월(6개월))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9개월)											
예술인권리보장법 교육(안내) 및 캠페인 (6개월)											

3-1

직업역량강화 / 지역상생 확대

직업역량강화/지역상생 확대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굿모닝 예술로>

사업소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직접 기업·기관에 파견하여 예술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안정된 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직업역량강화를, 기업·기관에게는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기업·기관

문화예술로 기업·기관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산지역 기업·기관

참여예술인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부산 지역 예술인

사업유형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굿모닝 예술로(협력형)
1(기업·기관):1~2(예술인)매칭	1(기업·기관):5(예술인)매칭

사업내용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개인형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및 기업·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예술인이 자신의 분야와 희망하는 협업유형에 맞춰 기업과 현장미팅 후 1:1~2로 매칭됩니다. 이후 기업과 예술인이 협업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합니다. 예술인의 활동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간 및 기타 재료비는 기업·기관에서 제공합니다.

굿모닝 예술로(협력형)

협력형은 2020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지역협력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예술로사업은 공모를 통해 참여 기업과 리더예술인을 선정하여 사전 매칭한 후, 매칭데이(현장면접)를 통해 참여예술인 4명을 팀으로 구성합니다. 즉 하나의 기업에 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4명 총 5명의 인원이 파견되어 팀 단위로 활동하게 되며, 예술인의 활동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활동기간 동안 예술인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협업활동을 진행해볼 수 있으며, 기업·기관은 창의적 예술방식을 통해 조직의 이슈를 해결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행사, 공연, 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술인과
기업·기관의 역할**



참여예술인

- 참여기업·기관 이슈 진단 및 예술적 개입방향 설계, 프로젝트 기획
- 기업·기관, 예술인과 협업 활동 진행 및 공유
-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참여기업·기관

- 예술 협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환경(공간, 재료비 등) 및 OT 제공
- 예술인 활동 협력(월 1회 이상 전체회의의 진행)
- 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
-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소개

조직문화개선	복리후생	교육훈련
사내조직의 문화변화를 목적으로 소통방식, 협업방식, 업무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술적 지원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예술적 개입으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	직원의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적 지원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제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또는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예술적 지원	제품 브랜딩,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예술적 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구현에 필요한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적 지원

사업성과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업·기관(곳)	13	35	20	31	35	32	38
참여예술인(명)	13	40	20	70	79	35	80

총 7년간 204개 기업·기관, 337명 예술인 참여

추진일정

사업공고	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모집	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선정	참여예술인 모집	매칭데이
3. 7.	3. 7. ~ 22.	3. 30.	4. 4. ~ 11.	4. 24.
협업활동 시작	필수교육	현장모니터링 (2회)	결과공유회	협업활동 종료
6. 1. ~	7. 5./11. /17./25.	(1회) 6. ~ 7. (2회) 9. 18. ~ 10. 20.	11. 24.	11. 30.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연번	기업명	참여예술인	분야	업무유형
1	오픈아츠 스페이스머지	이현주	미술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2	(재)영화의 전당	최나래 김민주	미술 다원예술	제품기획, 사회공헌활동
3	어반브릿지	정안용 서소형	미술 미술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4	부산장애인직업 적응훈련센터	이영재	음악	교육훈련, 제품기획
5	(주)대한소방공사	장재희	국악	교육훈련, 홍보 및 마케팅
6	(주)이중섭 문화마을	김은지	미술	홍보 및 마케팅, 사회공헌활동
7	(주)라텍	김정아 박숙민	미술 미술	사회공헌활동
8	(주)착한세상	김민정 김선화	미술 미술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9	관객문화협동조합 모듬이극장	허주영	디자인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10	만덕종합 사회복지관	천세훈	음악	사회공헌 활동

연번	기업명	참여예술인	분야	협업 주제
11	(사)부산어린이 어깨동무	이인우 노현지	사진 미술	홍보 및 마케팅, 사회공헌활동
12	(주)아이엠아이	전미희	미술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13	(주)바림	박근형	사진	홍보 및 마케팅
14	뿌아공 (부산아트공방)	김현엽	미술	사회공헌활동
15	아트모아갤러리	김유림	미술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16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이정임 정혜원	무용 무용	조직문화, 교육훈련
17	문화예술조은학교	김정인 이남영	영화 영화	조직문화, 사회공헌활동
18	문화공동체지구인	주혜자	연극	사회공헌활동
19	(주)정은	이혜진	미술	사회공헌활동
20	부산광역시 중구문화원	나명남 이선옥	미술 미술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21	다큐박스	조태준	음악	홍보 및 마케팅, 사회공헌활동
22	시민제과	손형호	미술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23	수요일	김민우 장태구	영화 영화	교육훈련, 홍보 및 마케팅
24	스튜디오LAN	오정민	미술	홍보 및 마케팅, 사회공헌 활동
25	사상구가족센터	남진우	영화, 대중예술	교육훈련, 사회공헌활동
26	동래종합 사회복지관	김지우 정종훈	미술 미술	복리후생, 홍보 및 마케팅
27	장애인참여배움터	문건호	대중예술	조직문화, 사회공헌 활동
28	성화조명	이나현	미술	제품기획, 사회공헌활동
29	무사이프렌즈	김지현 장상천	문학 영화	제품기획, 사회공헌활동



굿모닝 예술로(협력형)

연번	참여기업	참여예술인	예술인분야	업무유형
1	(주)DRB동일	박수민	영화	조직문화, 사회공헌활동
		김도한	연극,대중예술	
		전자연	연극,대중예술	
		박성준	연극	
		김세진	연극	
2	정현전기물류	심종후	미술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김수정	미술	
		박민규	미술	
		박상환	미술	
		이진국	미술	
3	세경코퍼레이션	김혜윤	문학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박혜인	미술	
		박세정	문학	
		김성국	영화	
		김재식	영화	
4	(주)호밀밭	이재은	무용	홍보 및 마케팅, 사회공헌활동
		강건	무용	
		홍석진	기타(다원)	
		강라원	음악	
		이유나	국악	
5	동삼종합 사회복지관	박소산	무용	조직문화, 사회공헌활동
		김도경	국악	
		김현정	무용	
		엄정원	미술	
		박진경	미술	
6	행복한 도서관	김윤호	미술	교육훈련, 사회공헌활동
		김기범	미술	
		박상은	미술	
		유현숙	무용	
		김원일	대중예술	
7	물빛색스튜디오	허경미	무용	홍보 및 마케팅
		박은지	무용	
		정승화	미술	
		정승환	무용	
		이아름	연극	
8	예술은공유다	이정우	영화	홍보 및 마케팅
		김원	대중예술	
		엄지영	연극	
		권현희	미술	
		이봉미	기타(기획,미술)	

부산형 예술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 <BPAM RISING ARTISTS>

사업소개

부산형 예술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 사업은 예술인권리보장법(2022. 9. 25)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예술대학교와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비예술인의 활동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예술대학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예비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구축하여 예비예술인을 위한 공연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술활동증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예술인의 더 나은 발전과 성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부산지역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신진예술인

사업내용

지역 내 예비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발판 마련 및 예술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연 예술의 장 및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과 연계했습니다.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총 6개 대학 89명의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공연활동의 장을 마련하였고 예비예술인 해외진출 기반 제공 및 해외유통 사례를 2건 발굴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예비예술인들과 국내외 공연산업관계자들 간 교류의 장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성과

참여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참여예술인(명)	41	8	6	18	7	9

총 6개 대학, 89명 예술인 참여
신진예술인 해외 진출 기반 제공 및 해외 유통 사례 발굴(확정 2건)

참여학교 및 팀 명단

연번	분류	참여 학교	참여 팀
1	연극	경성대학교	심화
		동서대학교	노리안
		영산대학교	물레방아
		부산대학교	한국 춤 프로젝트 '가마'
		부산대학교	A.o.V 무용단
		부산여자대학교	BWC 댄스컴퍼니(스트릿댄스)
2	무용	부산여자대학교	BWC 댄스컴퍼니(한국무용)
		신라대학교	영영
		신라대학교	AEI
		경성대학교	경성윈드오케스트라
3	음악	경성대학교	경성윈드오케스트라

해외 유통 팀 인터뷰

단체명 BWC댄스컴퍼니 대학명 부산여자대학교

질문1

BWC 댄스컴퍼니 및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BWC댄스컴퍼니는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스트릿 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여러 파트의 전공생들이 함께하는 팀입니다. 이번 '거친 선을 굽다'라는 작품은 요즘 현대인들의 힘든 일상을 선으로 거칠게 표현하며, 자유를 쫓는 인간의 욕망을 부드러운 몸짓으로 표현하여 우리들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질문2

BPAM RISING ARTISTS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교 교수님의 추천에 의해 BPAM을 알게 되었고 해외 공연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저희 스스로 작품 창작과 연출, 음악, 의상 등 모든 작업을 협심하여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색다른 경험과 소중한 공연의 기회를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3

사업 참여를 통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사업 참여를 통해 저희들의 작품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 나가고 더해가면서 정말 값진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작품을 세계 여러 델리게이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해외무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문4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 소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무용수들을 만나면서 각 나라의 전통 탈춤을 보고 경험하며 새롭고 뜻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가면축제에 여러 나라 무용수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그 축제를 위해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 국적은 다르지만 춤이라는 것 하나로 서로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경험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가 처음으로 공연을 해보면서 정말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여러 나라 무용수들 덕분에 더욱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3-2

예술인

사회안전망 지원



부산예술인 <행(정)복(지)플랫폼>

사업소개

부산문화재단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15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생활권 안 예술인들의 문제 해결 및 갈등 완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부산 주요 권역에 행(정)복(지)플랫폼을 조성한 후 부산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예술인 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하여 지역 예술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해결합니다.

사업대상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부산인 예술인
퍼실리테이터 예술활동증명 완료 부산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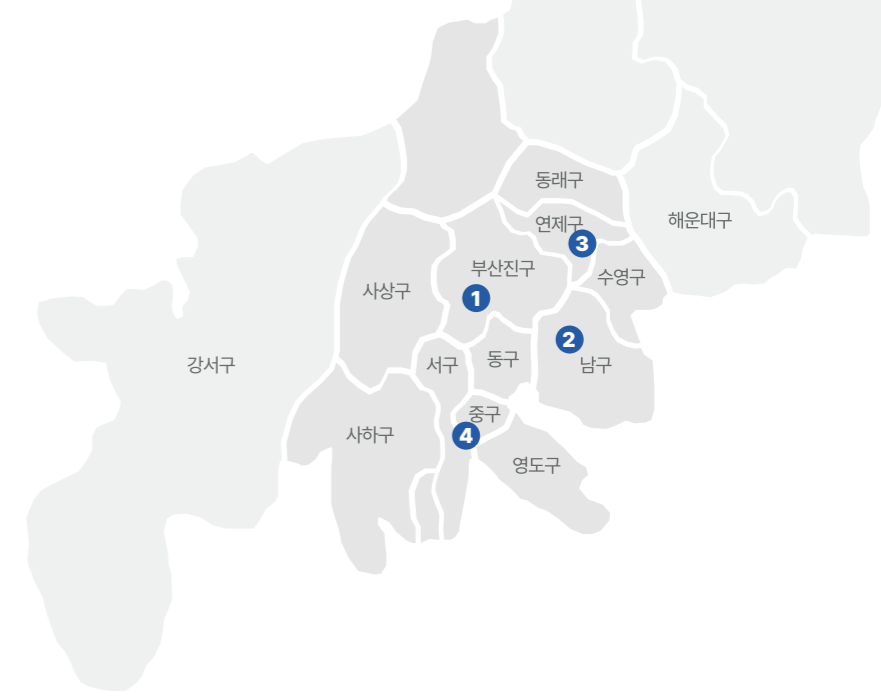
사업내용

- 행(정)복(지)플랫폼에 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하여 1:1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지원금 등 대행서비스 제공
- 지역예술인 네트워킹 거점 공간 조성
- 예술인 복지 홍보를 위한 기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사업체계도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	협력기관	퍼실리테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플랫폼 사업 - 홍보 및 안내 - 대행서비스 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플랫폼(공간) 조성 - 월별 활동보고서 - 검토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사업 안내 및 홍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 업무 대행 - 협력기관 업무 지원 -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

협력기관 및 퍼실리테이터



협력기관	퍼실리테이터	주소
① (재)부산진문화재단	이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지하 181, 26,27호(전포동, 지하상가)
② (사)부산예총	이지윤	부산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302호
③ (사)부산민예총	김승림	부산시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7,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노외주차장
④ 원도심창작공간 운영지원센터	김용호	부산시 중구 대청로 135번길 10 (5층 오성빌딩)

사업성과

4개의 협력기관에 4명의 퍼실리테이터 파견

홍보물 및 진행사진



Q1

협력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부산진구에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입니다.

Q2

행복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예술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예술인에 관한 지원 정책을 많은 분들이 모르다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고충을 면밀하게 듣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더 나은 생활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Q3

부산 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사업 안내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1) 미술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선생님이 책자를 10권 넘게 들고 오셨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하신 예술인에 관한 존경심과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절차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고마워요. 뭐라도 사주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고마움을 전해 받으면서 예술인활동증명 사각지대에 계신 분께 직접적으로 와닿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예술인복지사업의 효능감을 경험했습니다.
2) 청년 예술인분의 문화기획 분야에 관한 대행 서비스를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활동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께만 필요한 지원인가 싶었지만, 주변 청년 예술인들도 은근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안내 하는 서비스가 있어 굉장히 편리하다며 떠오르는 분이 있다며 주변에 알려주셔서 며칠 뒤 다른 청년 예술인 분과도 연결 되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입소문이 짱인 듯 합니다!)

Q4

다음번에 활동하게 될 미래의 퍼실리테이터에게 전하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

- ① **예술가님과의 대행 약속은 꼭 1시간 30분 단위로 잡아주세요**
퍼실리테이터 초창기에 대행서비스를 1시간 단위로 잡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술가님 오셔서 이야기 하다가 신청서 쓰고, 회원가입 해드리다보면 1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최대로 1시간 30분으로 예약을 잡으세요.)
- ② **“선생님 고생 많으셨죠?” 멘트는 센스!**
협력기관까지 힘들게 찾아오신 예술가님께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면 마음이 풀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예술인 분들의 방문이 많으니 더욱 그래요!
(친절한 멘트는 한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 ③ **상담에 관한 내용 및 맥락 이해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참고!**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에 다양한 사례의 상담 내용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술인 상담 case가 워낙 다양 하다보니 미리 미리! 카카오톡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챙겨보면 실제적인 고민과 질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모호했던 맥락이 한층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 ④ **협력적 퍼실리테이터 되기!**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와 정말 난감한 장면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른 권역에서 활동하는 퍼실리테이터와 면밀하게 소통하여 난감했던 지점을 서로 교류하면 모호했던 점이 해소가 되고 놓치고 있던 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Q1

협력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극, 연예예술인, 영화인, 음악, (특별회원) 꽃작가, 차문화 협회가 속해 있는 연합단체입니다.

Q2

행복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술인과 행정 사이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게 끌렸습니다.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복지’의 의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게 의미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행복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부산 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사업 안내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한꺼번에 4명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을 도와드린다고 애를 먹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할 때는 분명 한 분이었습니다. 서예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당일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1명에서 4명이 되어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해왔지만 무겁게 도록을 다 들고 오셔서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4명 모두 한꺼번에 대행 서비스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부산 예총 사무실은 따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사무실 안에서 1명씩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기 공간에 3명이 있고 컴퓨터 앞에서 1명과 함께 대행 서비스를 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업무를 모두 멈추고 3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찾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도록은 다 검토하지도 못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명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겨우 원상 복구했습니다. 사무실 제 자리 옆에 산처럼 쌓인 도록은 나중에 틈이 날 때, 도록 이미지 촬영을 하고 사이트에 파일을 등록해드리고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후에 보완요청으로 또 오시기도 했어서 이 서예 하시는 선생님들과의 인연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관련해서 몇 개월간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Q4

다음번에 활동하게 될 미래의 퍼실리테이터에게 전하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

- ① **전화 문의 시, 원로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휴대폰이 본인 명의인지, 한예복 ID랑 PW를 기억하는지 꼭 물어봐주세요!**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심지어 본인이 예술활동증명이 되어있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실컷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 다 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시도했는데 이미 예술활동증명이 되어 있어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또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식 분 명의로 되어 있어 본인인증이 안되어 고충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한예복 홈페이지로 우선 회원가입이 되어있는지,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기억하는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분야가 국악이면, 무형문화재 이수자인지 꼭 물어봐주세요!**
무형문화재 이수자이면 따로 이수증 자료가 필요하고(미리 선생님께 챙겨와 달라 해야하고) 그냥 공개 발표된 활동 증명하는 것보다 자료를 덜 준비해도 되기 때문에 이수자인지 물어주는 센스 정도는 탑재해두면 좋습니다!
- ③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여러 개이면 꼭 쓰는 거 하나 빼고는 다 탈퇴해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같아도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회원가입을 했는지 유무 또는 아이디가 기억이 안난다고 여러 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디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나머지는 헛갈리기 때문에 탈퇴를 그 자리에서 같이 진행해주면 좋아요! 예전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아이디끼리 통합을 시켜줬는데 요즘에는 신청할 아이디를 제외하고는 다 탈퇴를 권고하더라고요!

Q1

협력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사)부산민예총은 부산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어있으며 민족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지역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며 민족예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등과 같은 지역문화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2

행복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 전공이 공연기획경영학이라서 많은 선후배 예술인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만나본 예술인들은 예술 인복지제도의 기본인 예술인등록제도와 예술인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는, 알고 있다고 해도 등록의 어려움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예술인을 위한 많은 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차근차근 쉽게 이해되도록 안내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참여하였습니다.

Q3

부산 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사업 안내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예술활동증명 대행업무 신청하신 분이 방문 당일에 갑자기 방문을 취소하시고, 다시 재예약 후 또 당일 에 취소하시는 것을 3-4번 반복하신 후 결국 방문하셨는데 증빙자료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추후 카톡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추후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후에도 종종 새벽 에 본인 관련 포스터를 보내셨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Q4

다음번에 활동하게 될 미래의 퍼실리테이터에게 전하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

- ① 개인연락처는 공개하지 마세요
예술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이 없어서 휴무, 새벽, 늦은밤에 연락을 자주 하십니다. 업무 외 시간에 연락받고싶지 않으시다면 안내문자는 협력업체 문자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② 필요자료는 예시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드려도 헛갈리셔서 종종 잘못 가지고오시거나 안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으니 예시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 ③ 다른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퍼실리테이터 분들과 소통하세요
모르는 점들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퍼실리테이터 특방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를 줄 수 있고,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 ④ 방문하시기 전에 신청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종종 신청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십니다. 오시기 전 신청 대상자(예술활동증명 기간만료, 자료준비가능)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방문 예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⑤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료는 지우지 마세요.
종종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확인해볼 일이 생기니 예술활동증명 결과가 나올때까지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 ⑥ 자세한 위치안내 블로그 포스팅을 보내주세요
부산민예총은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찾아오시기 어려운 곳에 있으니 부산민예총 블로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찾아오시는 방법 포스팅 링크를 보내드리세요!

Q1

협력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Q2

행복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돕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부산 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사업 안내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합니다.

Q4

다음번에 활동하게 될 미래의 퍼실리테이터에게 전하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

- ① 예술가님과 상담 약속을 잡을 때에는 점심시간 겹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상담은 때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겹치면 난처해질 수 있으니 시간은 넉넉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되도록 협력기관의 전화로 응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번호로 연락을 취하게 되면 퇴근 후에도 연락이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일적인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면 꼭 협력기관 내 내선 전화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③ 응대는 친절하게
예술가님이 방문하시면 커피나 음료를 대접하고, 친절한 말투로 응대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상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 ④ 증빙서류 등의 자료는 보기 쉽게 정리하기
여러 예술가님을 응대하고 대행하다 보면 서류나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를 처음부터 잘 정리하여야 나중에 편합니다.
- 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카카오톡 적극활용하기
카카오톡에 담당자 등록을 하여야만 누가 무슨 상담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응대나 사진을 받는 것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컨설팅 매칭사업 <아이컨택>

사업소개

“I CONTACT, EYE CONTACT”

부산 예술인이 예술가로 살며 겪는 다양한 의문점을, 희망하는 전문가에게 1:1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예술인 컨설팅 매칭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술활동 결과물 중심의 지원이 아닌 예술창작 과정 지원을 통해 능동적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대상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부산 예술인

컨설턴트

총 56명

문화예술	법률	회계	홍보	노무	상담
41명	6명	2명	2명	2명	3명

컨설팅 분야

 법률	 회계	 노무
 홍보	 상담 (심리, 성희롱·성폭력)	 문화예술 (영상, 기획, 창업, 기술)

컨설팅과정

예술인



회원가입

전문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각종 알림 수신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컨설팅 요청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리스트를 확인 후 컨설팅 받고자 하는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요청을 해주세요.



컨설팅 일자 확정

요청한 컨설팅이 수락되면 컨설턴트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보를 통해 컨설턴트와 컨설팅 일자 및 장소를 확정해주세요.



컨설팅 진행

신청 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완료

진행 중인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관리자를 통해 컨설팅이 최종완료됩니다.



만족도 조사 제출

컨설팅 완료 후 문자로 발송된 만족도 조사를 제출해주세요.

컨설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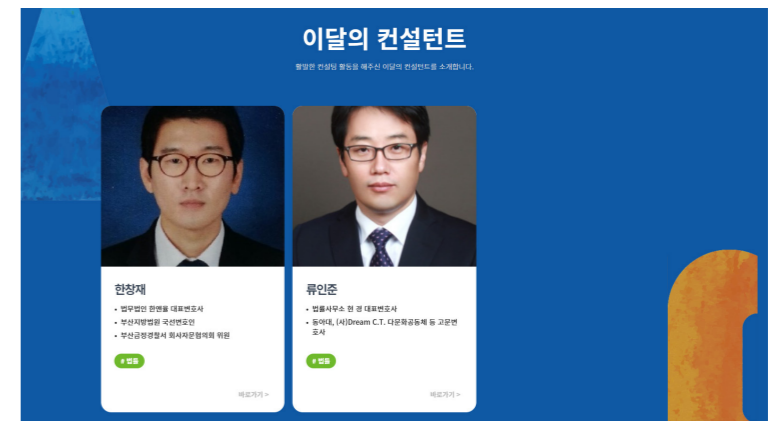
컨설턴트



사업성과

구분	분야	건수
컨설팅 요청 보류 및 거절	회계(2건)	4건
	창작(1건)	
	예술창업(1건)	
컨설팅 중단	회계(1건)	3건
	창작분야(1건)	
	법률(1건)	
컨설팅 진행중	예술기획(1건)	1건
	창작(19건)	
컨설팅 최종 완료	법률(3건)	55건
	회계(6건)	
	예술기획(13건)	
	예술창업(4건)	
	저작권(4건)	
	홍보마케팅(4건)	
	심리상담(1건)	
노무(1건)		

홍보물 및
진행사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및 퍼실리테이터 운영

사업소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문제해결 및 갈등관리, 역량 개발을 위한 퍼실리테이터가 상주합니다. 원로예술인, IT 취약계층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및 맞춤형 신청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사업내용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퍼실리테이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공간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홍보 및 안내 · 지역예술인 복지지원 매개 역할 수행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예술활동 증명, 창작준비지원금 등) 신청 대행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참여 · 예술인의 문제해결 및 갈등관리

한눈에 보는 부산예술인 퍼실리테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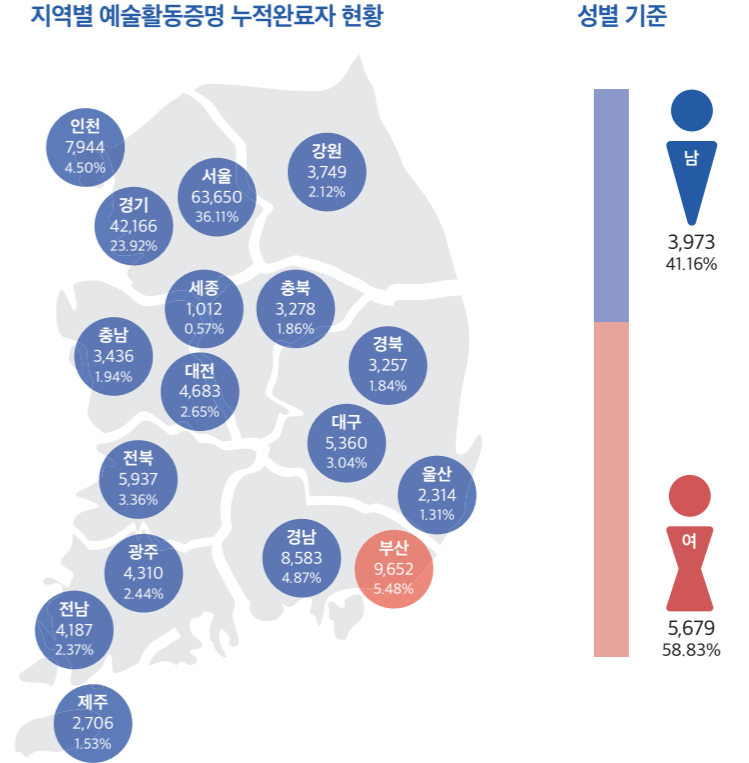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술인복지 퍼실리테이터	-	-	-	-	2명	2명	2명	2명
예술활동증명 누계 (당해연간)	2,059명	2,994명 (935명)	3,490명 (496명)	4,040명 (550명)	6,691명 (2,651명)	7,708명 (1,017명)	8,922명 (1,214명)	9,652명 (730명)
예술인패스 누계 (당해연간)	1,158명	2,144명 (986명)	2,666명 (522명)	3,196명 (530명)	5,712명 (2,516명)	6,529명 (817명)	7,983명 (916명)	8,717명 (734명)
창작준비 지원금 선정							상반기	상반기
	32명	200명	227명	257명	802명	1,124명	1,074명	964명
창작준비 지원금 선정							하반기	하반기
	96백만원	600백만원	681백만원	771백만원	2,406백만원	3,372백만원	430명	388명
							1,290백만원	1,164백만원

사업성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730명(누계 9,652명)
예술인패스 완료자	734명(누계 8,717명)
창작준비지원금 선정	상반기 576명 / 하반기 388명
창작지원금신청 대행	상반기 41건 / 하반기 21건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2023.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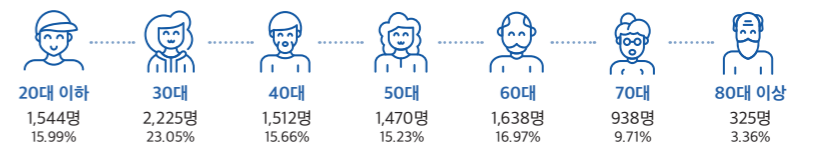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연령별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3-3

예술인 창작환경
지원/불공정관행 개선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운영

사업소개

부산지역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피해지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개인 및 단체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성희롱 성폭력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예술인

기관별 역할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관리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캠페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전반 · 피해 접수 및 피해지원 (상담, 의료, 법률, 치유 회복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홍보

사업내용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회복 지원(전문심리상담, 치유회복, 집단상담 등) - 수사 및 법률 지원(민·형사 소송, 법률자문, 법정모니터, 탄원서 작성 등) - 의료 지원(의료동행, 병원연계, 의료비 지원 등)
2차 피해 방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피해사례 수집 및 해결책 마련, 공동대응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및 2차 피해방지 교육
예방교육 및 근절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대상 예방교육 워크숍 진행 - 부산지역 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한 캠페인 진행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상담시설 등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컨설팅 실시 -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와 상시적인 기획회의 및 사업반영

사업성과

예방센터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17회) 및 운영회의(6회) 진행 · 구성 : 정문순(문학 평론가), 김지나(실용음악과 교수), 엄지영(연극배우), 전찬영(영화 감독) 운영위원 · 내용 : 사업보고 및 계획, 시기 사안별 현안공유 및 논의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5회) · 기관 : 다큐멘터리창작공동체 오지필름, 극단새벽,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연극협회, 이희숙 작가 · 내용 :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가와 회의 및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 확장 - 전문상담원 역량강화(6회) · 예술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감수성 높이기 연극, 실무자 소진 예방 '비움과 채움' 연수 등
피해자 지원 및 대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회복지원 · 상담지원 62건, 2,813회 · 개별치유회복프로그램 5명 25회 · 후속 전문치유회복프로그램 5팀 - 수사법적지원 · 법률자문 146회, 무료법률상담 17회, 무료법률구조연계 16회 · 수사·법정진술 신뢰인 동석 9회 · 법정모니터 59회, 탄원서 제출 2건 - 사건대응지원 · 사건 지원 45건 · 사건 대책위 구성 및 대응활동 5건 - 의료지원 등 · 의료비지원 38회 · 전문심리상담센터 연계 5회 - 사례관리 · 내부 상담사례분석 15회 · 외부 상담사례피드백 및 슈퍼비전 2회
예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예방교육 100회, 1,661명 - 예술인 집담회 60여명 - <운전배우기>, <죽음과 소녀> 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극(11.28, 효로인디아트홀)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상담시설 등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컨설팅 실시 -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와 상시적인 기획회의 및 사업반영

홍보물 및 진행사진



예술인권리보장 안내(교육) 및 캠페인

사업소개

예술인권리보장법(2022.9.25.) 시행에 따라 권리보장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역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모임지원을 추진하여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인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내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전문예술인

공고일 기준, 거주지를 부산광역시로 둔 예술가 및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예비예술인

부산광역시 소재 문화예술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사업내용

찾아가는 컨설팅 <예지몽>	경영지원·복지·법률·세무 등 전문 컨설턴트 매칭, 컨설팅을 통한 예술 단체 역량 강화
부산문화예술 자조모임	부산 문화예술인 권리보장 및 문화조성을 위한 모임 지원
예술인권리보장 세미나	예술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운영
예술인권리보장법 캠페인 홍보	예술인권리보장법 인식 확산을 위한 신문 광고

사업성과



예지몽 예술단체

5팀, 7건 참여



부산문화예술 자조모임

1팀 지원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기획기사

2회 제작



예술인권리보장 세미나

1회 운영
*자조모임·부산성취통·성취력예방센터 세미나 연계

Q 예술인권리보장법이란?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권리보장의 세 영역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예술인복지법보다 확대했습니다.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훈련을 받는 연습생도 예술인으로 포함되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단체 찾아가는 컨설팅 예지몽

사업명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예지몽(예술문화 지식을 몽땅)

기간 2023. 2. ~ 12.

내용 문화예술 경영지원, 노무, 법률, 세무(회계) 각 분야 전문가 방문 컨설팅

세부내용	교육	상담
	부산광역시 소재 10인 이상 예술단체,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소재 2인 이상 예술단체,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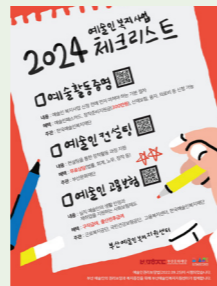
참여단체	단체명	컨설팅 분야	컨설턴트명
	어반스케쳐스부산	경영지원(국제교류)	이지숙
	사단법인 시읽는문화	경영지원	송경수
	부산플루트앙상블	경영지원	이지숙
	공예디자인연구소 솔레	경영지원	김성진
	현대목칠공예가회	경영지원	송경수

예술인권리보장법 캠페인 홍보

사업명 예술인권리보장법 캠페인 홍보

기간 2023. 12. 6.(수), 12. 8.(금)

내용 예술인권리보장법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용 신문 광고 제작



부산문화예술 자조모임지원 그린라이트(RIGHT)

사업명 2023 부산문화예술 자조모임지원 <그린라이트(RIGHT)>

기간 2023. 7. ~ 12.

내용

- 예술인권리보장 인식제고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활성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 지역 내 예술인권리보장 관련 담론을 생성, 발굴하고 결과공유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창작환경 토대의 기반 마련
- 예술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결과공유회 운영

세부내용

- 공모대상: 예술인권리관련 담론 발굴 및 모임 운영이 가능한 부산예술인
- 지원내용: 자조모임 운영 팀당 최대 250만원 지원

공모주제	공모주제
	①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② 성평등한 예술환경조성
	③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신청자격

- 공모주제에 부합하는 예술인권리관련 담론 발굴 및 모임 운영이 가능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 3년 이내(`20~`22) 활동실적(1건) 자료 제출 가능한 부산거주 예술인

선정 자조모임 소개

- 모임명: O.um_오늘의 움직임
- 공모주제: 성평등한 예술환경조성
- 모임주제: 무용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만연한 성차별적 행위를 개선시킬 방안 모색
- 모임내용: 무용 예술계에서 성차별이 시작된 문제의 원인과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점을 모색하고 성차별적 행위가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 탐색

결과공유 세미나 운영

- 2023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예술인 네트워킹 세미나 연계, 2023 부산문화예술 자조모임지원 사업 <그린라이트(RIGHT)> 결과공유 세미나 운영
- 일시 및 장소: 2023. 12. 19.(화) 13시, 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
- 참석자: 오늘의 움직임(자조모임 선정팀),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예술인운영위

참여모임팀 인터뷰

모임(단체)명 <O.um_오늘의 움직임> **참여구성원** 박은, 남가영, 박지수, 임선영, 황일정

모임주제 무용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만연한 성차별적 행위를 개선시킬 방안 모색

Q1

모임 소개와 모임을 구성하게 된 계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평등한 예술환경’이란 숙명여자대학교에 졸업한 저로서는 늘 고민해 오던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춤을 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나 또한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자기 합리화’를 통해 춤을 추고 있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창작적인 움직임,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에서 오는 즉흥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런 움직임들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는 여러 가지 고민에서 조금이나마 현재 예술계에 있는 무용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Q2

어떤 주제로 모임을 진행하셨나요?

모임의 주제는 성평등한 예술환경이며 모임 운영 내용은 현 문화예술에서 성차별적인 부분들과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위한 워크숍을 실기와 이론을 혼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무용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공자로 진행하였으며 앞서 모임에서 참여구성원끼리 토론하였던 양성평등 관련 논문들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뒤 현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로 나누었습니다.

실기 워크숍으로는 성차별적 행위가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억압과 강제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바디로만 표현해보면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알 수 있었으며, 남, 녀를 나누지 않은 움직임(중성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움직임은 없다는 것을 이번 실기 워크숍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름다워야 하며 남자는 강인해야 한다는 편견을 조금이나마 깨부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3

모임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워크숍이 끝난 후 참여자들이 다가와서 또 이러한 형식의 색다른 워크숍들을 열어달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산에서는 서울과 달리 창작 워크숍과 이론 워크숍 같은 강의 형식의 수업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무용을 업으로 삼고 춤을 추고 싶은 부산무용인들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들을 보며 늘 부러운 마음이 많았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로 무료 워크숍을 열어서 다양한 움직임과 토론까지 하며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워크숍 수업과는 달리 진행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본인들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무용에 관한 고민들과 여러 의견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들도 좋았다고 말씀 주시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들 이상으로 전달된 것 같아, 진행자 모두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Q4

모임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처음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적어낼 때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다 통합하여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거주지가 부산이 아닌 사람들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로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무용 예술인들을 더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저도 상경하여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입장으로써 부산에 있는 무용수들은 배움이 욕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청년무용가들의 목 메말라 있는 배움의 에너지와 그들이 가진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2024년도에는 더 좋은 지원사업으로 부산 무용수들의 성평등한 상황과 젊은 춤꾼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디딤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는 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원사업으로 하나가 아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부산문화재단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인생활안내서발간 <알! 부산한 예술생활>

사업소개

예술인생활안내서 <알! 부산한 예술생활>은 지역예술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창작, 생활, 복지, 일자리 등 지역예술인에게 종합 안내서가 되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한눈에 예술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하여 발간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0호** 부산에서 살아가는 예술인을 위한 “읽어두면 쓸모있는 예술인 꿀팁” 매거진 미리보기 제작
- 1호** 용자사업 및 예술활동증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등을 소개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복지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서 제작
- 2호** 예술 분야별 소비패턴, 예술인이 영감을 얻는법, 예술인 쉼 등 예술인들의 생활감 있는 유쾌한 이야기를 담고, 부산 내 전시공간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즐겁게 있을 수 있는 생활관련 안내서 제작

생활안내서 발간 표지



<알! 부산한 예술생활 0호> <알! 부산한 예술생활 1호> <알! 부산한 예술생활 2호>

사업성과



<알! 부산한 예술생활>
1호 발간 및
286곳 배포 완료



<알! 부산한 예술생활>
2호 발간 및
265곳 배포 완료



1호 SNS 홍보 이벤트
<예술인의 하루하루가
궁금해> 3명 선정



2호 콘텐츠 게시 및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권 증정

<알! 부산한 예술생활> 에디터 4인의 후기

후기1 박민경(공예)

<알! 부산한 예술생활> 안내서를 만드는동안 부산 지역의 작가님들로 구성된 편집진, 그 외 여러 예술인들을 취재하면서 작가들은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가님들과 만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어 행운이었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것 만큼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 안내서가 정보의 부족과 해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예술인들의 생활이나 창작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기2 유혜린(문학)

저는 몇 년 전 봄, 치과에 가다가 우연히 온천장역 지하철 광고를 보고 예술활동증명이란 것을 알게되었고, 창작지원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볼수록 생각보다 예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복지 혜택들이 곳곳에 많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 치과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술인 복지에 대해 하나도 몰랐다면 여러 혜택을 많이 놓쳤을 것입니다. 우연히 본 광고 하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알! 부산한 예술생활’ 만들기를 도왔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많은 사람이 ‘알! 부산한 예술생활’을 읽으며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후기3 엄호빈(공연)

우리는 그동안 배낭 가득 화살표 스티커를 챙겨 복지로 향하는 길과 예술인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골목골목에 화살표를 붙여 나갔습니다. 1호 복지편에서는 좋은게 좋은게 하지 하며 지나쳤던 서로의 권리에 화살표를 꼭, 2호 생활 편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소소한 팁들에 화살표를 꼭꼭 붙이며 지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2호가 마무리된 지금, 많은 정보에 흥미를 잃지는 않았는지 화살표가 생각보다 작아서 찾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지만 안내서가 필요한 어떤 순간에 우리가 붙인 화살표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기4 심종후(미술)

몸으로, 발로 뛰는 예술인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글을 다루기는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2호는 좀 더 다채로운 콘텐츠를 다룰 수 있어 재미있었는데 예술인으로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것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읽히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은 무얼하며 지낼까?하는 예술인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음... ‘재미있는 유튜브 시청’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4

빈집활용 창작공간
구성 및 운영지원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사업소개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빈집을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속 유휴공간을 예술인의 창작공간과 시민문화 향유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 경관 및 환경 개선, 범죄 유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예술인과 지역민이 소통하며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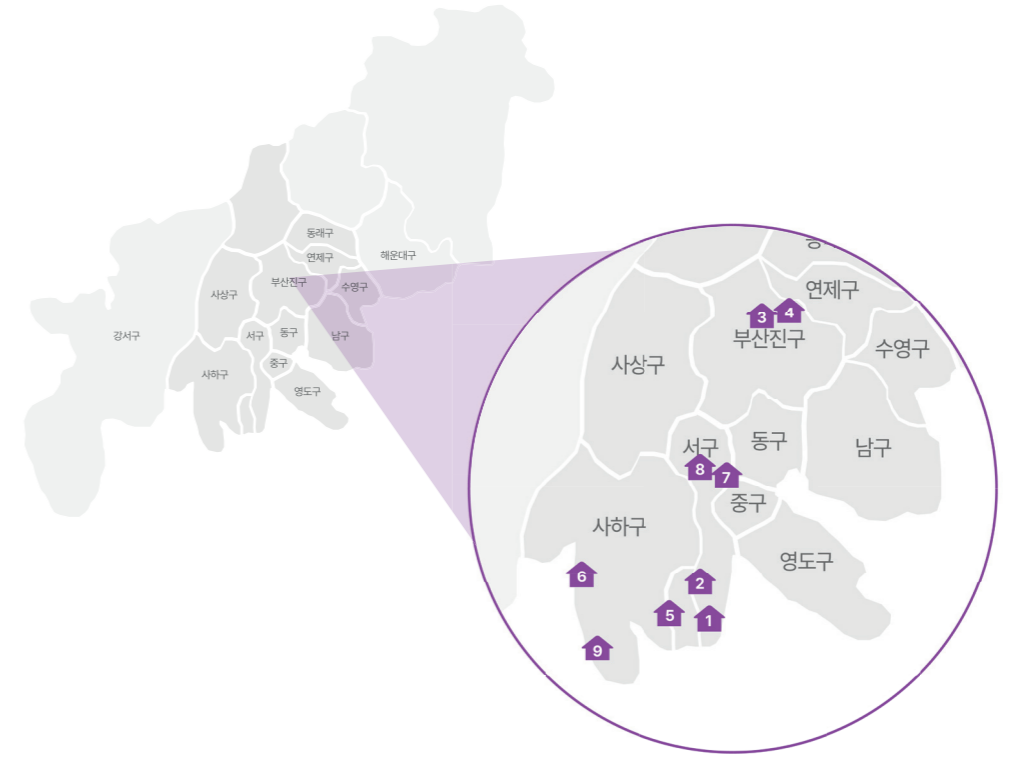
*입주 2년차에 활동 평가 후, 연장(1년)여부 결정

사업대상

입주예술가	창작공간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 소재지를 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최근 3년 이내 활동실적 자료 제출이 가능한 예술인(개인, 단체) 	부산소재의 유휴공간 소유자 (개인, 기업·기관, 공공기관)로 공간을 무상 기부 및 소정의 임대료로 예술인 창작활동과 시민 문화향유 공간으로 제공할 의지가 있는 분

공간현황

연번	공간명	위치	공간용도	면적
1	감천점	사하구 감천로 163 1층	주택	29㎡
2	옥천점	사하구 옥천로54번길 11	주택	185㎡
3	새싹1,2호점	부산진구 새싹로 148, 4층	근린	62㎡
4				
5	다송점	사하구 다송로 59 (다대4지구 임대상가 지하101호)	근린	312㎡
6	낙동점	사하구 낙동대로 520번길 14 (하단청구아파트 지하)	근린	128㎡
7	망양1호점	서구 망양로 202-6	근린	102.39㎡
8	망양2호점	서구 망양로 170번길 20-1	근린	65.75㎡
9	흥티1호점	사하구 흥티로 74번길 22	주택	26㎡



사업성과

9개소, 20명 예술가 입주

연번	공간명	입주작가	분야	대표활동 내용
1	감천점	조은비	시각,비평	-
2	옥천점	유부경	시각	주민소통 미술체험활동 창작활동 아트페어 및 단체전 참여 등
3	새싹1호점	마은희	시각	주민소통 나에게 너에게 못다한 말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창작활동 마리 캘리그래피 이야기2 '마은희 개인전'
4	새싹2호점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연극	주민소통 숨결따라 인도 춤 배우기 '카타칼리'
		Pusil (정재은, 손유하)	시각	주민소통 상상력이 쑥쑥 창의미술 창작활동 개인전 (손유하 2회, 정재은 3회)
5	다송점	이수아	시각	주민소통 로맨틱 나의 부산 창작활동 길 위에서
6	낙동점	김현정	음악	주민소통 1580 Quartet 송년음악회
7	망양1호점	문혜정, 박민경	시각	주민소통 스텐인드글라스 기법을 활용한 유리공예, 인테리어 소품 마크라메 만들기 등
8	망양2호점	피스오브클래식	음악	-
9	흥티1호점	홍지혜	시각	주민소통 그림엽서 릴레이 창작활동 sensible_unsensible

🏠 옥천점 - 유부경

입주예술가명	유부경	장르	평면회화(서양화)
모임주제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및 단체전과 작품제작 주민소통 프로그램 미술체험활동을 통한 주민소통		

Q1

작가 소개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저는 복주머니를 소재로 평면회화(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국내외 아트페어, 단체전, 개인전 등을 위한 창작활동을 합니다.

Q2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유화, 아크릴화, 한국화, 캔버스 백 꾸미기 등 다양한 주제로 계획된 날짜에 1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령이 높은 어른들의 손 활동과 색을 통한 심리적 즐거움, 또 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미술활동을 통하여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작한 작품을 집으로 가져가면 자녀들이 자꾸 가져가신다고, 내 작품을 자녀들이 탐낸다고 말하시며 내심 우쭐하시는걸 보고, 저도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매 수업때마다 떡과 다과를 드렸더니, 그림만 배워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간식까지 매번 챙겨주신다고 마음 따뜻하게 돌아간다고 하셔서, 저도 진행하면서 늘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Q4

사업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빈집활용 창작공간 3년의 마지막 해를 보내며, 그간 프로그램을 함께한 마을 어른들과의 이별이 참 서운하고, 더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어른들을 보며, 3년간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잘 지내다가 떠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가면서 삭막한 요즘, 옥천로는 아직까지 다른 마을에 비해 주민 간에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따뜻한 이웃의 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 연세는 많으신 어르신들이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부산문화재단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저도 조금 동참한 것 같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2 새싹1호점-마은희

입주예술가명 마은희 장르 시각예술(캘리그래피)
 모임주제 창작활동지원 '마리 캘리그래피 이야기2' 마은희 개인전
 주민소통 프로그램 나에게 너에게 못다한 말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Q1

작가 소개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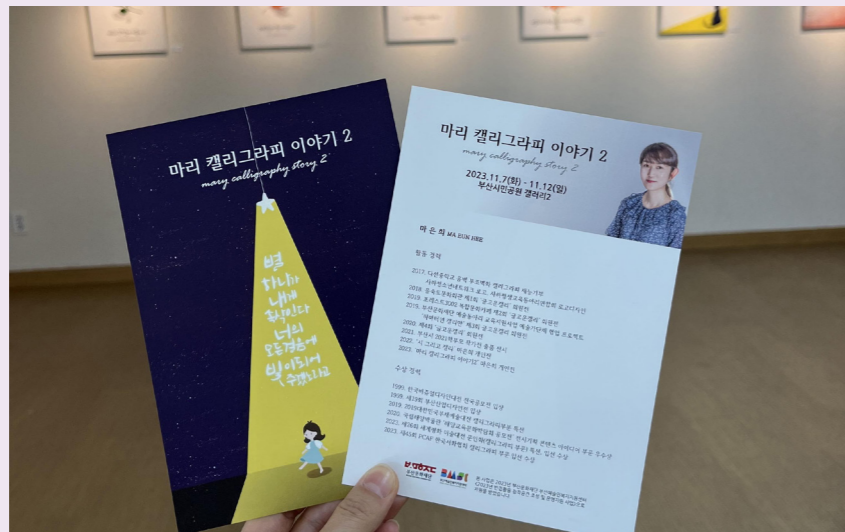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작가이자 마리아트샵 대표 마은희입니다. 일상의 이야기들과 찰나의 순간을 글과 그림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하고 정기적인 전시회를 열어 관람객들과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공모사업이나 미술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공감으로 인한 예술 문화 활성화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Q2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커뮤니티 아트 [나에게, 너에게 못다한 말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이란 주제로 '원형 투명 캘리그래피 액자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6회에 걸쳐 50여 명이 참여하여 저마다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서로의 소통이 힘들었던 시간 속에 개인의 많은 사연이 쌓여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선후배 사이에 작거나 큰 이야기들을 품은 채 미처 못다한 말들을 글로 써보며 주변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 감사, 고마움, 믿음, 그리고 떠나보낸 이의 그리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 간의 소통과 마음의 공감으로 인한 예술 문화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전시형 커뮤니티 아트로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부산시민공원 갤러리에 전시하여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지역아동센터, 부산진구청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곳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초등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들은 순수하고 창의적이었고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성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망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 굉장히 신중하지만 아이들은 본인의 이름을 함께 쓰면서 '○○아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등 자신 있게 본인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술 표현에 있어 멋진 작품이 아니어도 언제 나 늘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옳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Q4

사업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빈집활용(반딧불이) 사업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캘리그래피라는 예술 작품으로 남기게 되면서 서로가 공감이라는 영역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주민들은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전시로 이어지다 보니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예술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현상에 인생의 활력이 되고 치유의 시간이 되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전의 '마리캘리그래피 이야기2'는 저의 영혼의 단짝 친구를 갑작스럽게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담아 전시회를 찾아오신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어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관람객들에게서 자신의 아픔과 살아온 인생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서로가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은 공감과 치유라는 화두 속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은 있고 이겨내는 방법은 다르나 예술로서 승화할 수 있다는 경험과 깨달음을 알게 된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3 새싹2호점 -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입주예술가명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장르	연극
모임주제	주민소통 프로그램 숨결따라 인도 춤 배우기 '카타칼리'		

Q1

작가 소개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은 2005년 3월에 창단되어 '배우는 관객과의 만남을 희망하고, 공간을 통해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바라며'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2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숨결 따라 인도 춤 배우기 '카타칼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라칼리는 남인도 '께랄라' 지역에서 60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이야기가 있는 춤극'으로 동양 연극과 전통 춤의 총체성과 유기성이 체현되어 있습니다. 배우들은 누구나 캐릭터를 향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표현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에 카타칼리를 통해 몸과 마음, 나와 타인, 인간과 다른 존재를 연결하는 훈련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기본 호흡 및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손짓, 몸짓, 눈짓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배우고 시어 낭독과 노래, 역동적인 스텝이 어우러진 안무를 익혀 자신만의 표현으로 창작,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육을 사용 및 통제하는 방법과 유연성, 몸에 대해 자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함께 하나의 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카타칼리는 얼굴 표정 및 몸짓과 스텝 훈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육 이외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세부적인 근육 사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하지 훈련을 하고 난 후에는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다리가 후들거려 겨우 내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요.

ZOOM으로 인도 선생님께서 직접 표정 연기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눈썹부터 귀까지 하나하나의 근육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상적인 표정보다 200% 정도 과장되어 있어 다들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어떻게 근육을 따로따로 쓸 수 있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잘 되지 않았지만 집중해서 반복하다 보니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겨서 모두 신기해하기도 하고 뿌듯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몸의 근육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4

사업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카타칼리를 통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 내에서도 그런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음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낯설지만 특별한 경험을 함께하며 참여자들 간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작업에 필요한 부분, 고민하던 부분들에 도움이 되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카타칼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빈집활용 창작공간이 더욱 환하고 밝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호흡하고 소리를 맞추고, 땀 흘리며 움직일 때 느껴지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집중하고 나와 타인, 작업 및 예술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고 서로 어우러지며 연결되는 긍정적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 새싹2호점 - Pusil

입주예술가명	Pusil	장르	시각
모임주제	창작활동지원 전시(손유하 2회, 정재은 3회) 주민소통 프로그램 상상력이 싹싹 창의미술		

Q1

작가 소개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정재은, 손유하는 PUSIL이라는 팀명으로 빈집활용 창작공간에 입주하고 있는 청년예술가입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서양화, 한국화를 전공한 청년예술가이자 미술강사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의 대표활동으로는 <[∫ :INTEGRAL]>(전리단갤러리, 2023), <[∫ :INTEGRAL]>(부산시민회관, 2023), <To Thine Own Self Be True>(복합문화공간 온돌, 2021) 3회의 개인전을 진행하였으며, 43회의 단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술교육 관련으로 홈플러스 서부산점 문화센터 '미술 아틀리에' 강사(2023), 장전생활문화센터 '어반스케치' 프로그램 강사(2023), 서동예술창작공간 '미로에 빠진 나 I, II' 프로그램 강사(2020~2019)로서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손유하의 대표활동으로는 <월간 부산작가 초대전 손유하展>(스타필드시티 명지점, 작은 미술관, 2022), <머무르는 산 흘러가는 물결>(울속도 문화회관, 2022) 2회의 개인전을 진행하였으며 20여 회의 단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술교육 관련으로는 부산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초청 강사(2022, 2023)로서 예술영재교육원 미술 부문 행사(2022, 2023)를 진행하였습니다.

Q2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2023년도 하반기에 입주하여, 10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주민소통 프로그램 <상상력이 싹싹 창의미술>을 진행했습니다. 연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초등부 1-2학년 6명을 대상으로 8회 차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예술가이자 미술강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8회차 동안 다양한 창의 수업을 진행하여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증진시켰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휴지 팝콘, 개미가 사는 상상굴, 무지개 비가 내리는 집, 바다 세상 휴지 걸이 등이 있습니다.



<손유하 전시>



<정재은 전시>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상상력이 싹싹 창의미술> 주민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연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8회 차의 수업기간 동안 아이들과 친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수업을 위해 연지 다함께 돌봄센터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왜 이제와요~ 오늘 선생님들 오는 날이라 밑에서 기다렸어요"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나누었던 일상적인 대화, 통통 튀는 생각들은 저희가 준비해 간 수업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8회 차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희가 느끼는 만큼 아이들도 친밀감을 느끼고 반겨주니 마지막 수업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만큼 7회 차, 8회 차에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남기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Q4

사업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2023년의 하반기, 9월에 입주하여 빈집활용 사업으로 주민소통 프로그램 <상상력이 싹싹 창의미술>을 진행하며 동시에 꾸준한 작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주민소통 프로그램에서 성장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의 상상력 증진 및 미술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공인 팀원과의 소통을 통해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작지원 활동을 통해 작업 과정과 전시 집행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작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빈집활용 사업 덕분에 2023년의 하반기는 빠르지만 즐겁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진행될 Pusil의 활동 또한 기대되는 2023년의 연말입니다.



2023. 12. 이. 돌봄센터 기획자♡

5 다송점 - 이수아

입주예술가명	이수아	장르	시각예술
모임주제	창작활동지원 길위에서 주민소통 프로그램 로맨틱나의부산		

Q1

작가 소개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이 궁금해서 살게 된 이수아입니다. 사진영상설치 등 복합매체를 이용해 여러 가지 감각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아닌 새로운 장소 공간들을 직접 찾아 그곳에서 전시를 이어나가며 일상과 미술의 거리를 가까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시 일정 안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배우들이 즉흥으로 대사를 바꿔 전시 관람을 연기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 달 뒤에 예정된 1월의 여름 전시를 준비하며 사운드 수집, 영상 촬영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Q2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로맨틱부산’이라는 제목으로 첫 수업에서는 동네를 산책하며 사진으로 남기기, 두 번째/세 번째 수업에서는 그때 찍은 사진을 캔버스에 옮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낯고 오래된 아름다움이 현대사회에 묻혀 사라지기보다는 그것들을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뽐낼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려 하였습니다. 좁은 골목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다 보니 집 앞에 있는 들꽃, 골목길의 좁은 계단 등 스쳐 지나가던 것들을 앵글에 담으며 집중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미술도구를 준비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원하는 작품을 최대한 완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여러 연령이 한데 모여 서로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미술을 이용한 소통의 장으로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작년 프로그램(2022)을 진행하던 날은 날씨가 정말 좋아서 시간이 살짝 연장되기도 하고 시작과 끝의 경계가 모호하도록 촬영하며 돌아다니곤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2023)을 진행하는 이들은 비가 정말로 많이 내렸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참여자 접수를 다 마치고 장소 안내 문자까지 보낸 상황에서 작업실에 제습기가 고장이나는 바람에 프로그램 전날 긴급하게 장소를 섭외하고, 사람들에게 새로 공지 사항을 보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흔쾌히 공간을 내어주신 대표님들과 비바람을 뚫고 함께 프로그램을 즐겨주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재단에서 일하셨던 분도 한분 계셨어요. 인스타 광고 보고 친구들이랑 오셨는데 빈집활용(반딧불이) 사업이었구나 하며 신기해하셨습니다.

Q4

사업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2023년을 끝으로 저는 빈집활용(반딧불이) 사업을 끝내게 됩니다. 부산에 겁 없이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미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반딧불이에 2년의 시간 동안 참여하게 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작가지만 어찌 보면 기획자로 때로는 선생님이로 혼자서 씩씩하게 잘 해낼 수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확인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알아보시는 인쇄사장님도 생겼고, 자주 가는 철물점, 급하면 뛰어가는 화방, 좋아하는 사진관도 생겼습니다.

반딧불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헤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막막해하면 저는 이 사업을 추천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역량이 상승하게 되는 거라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래요. 행복한 연말 되세요!!

6 낙동점 - 김현정

입주예술가명 B'An die Musik - 김현정 장르 음악
 모임주제 주민소통 프로그램 음악회 2회 “1580 Quartet”, “송년음악회”

Q1

작가 소개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인 김현정입니다. 오페라 음악코치,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반주자 등 다양한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개최된 제1회 부산소극장오페라축제에서 4개의 오페라 작품 중 “Maddalena”와 “버섯피자” 2개의 작품에 참여하였습니다.

Q2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주민소통프로그램으로 2회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음악회로는 플루트,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재즈콰르텟 1580 Quartet 팀을 초청하였습니다. 가요, 팝, 재즈 등 관객들이 함께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연주자들과 함께 신나게 즐겼던 공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악회는 제가 직접 연주에 참여하였습니다. 피아노 트리오와 소프라노, 바리톤 두 분의 성악가 선생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영화 OST, 가곡, 오페라 아리아, 캐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연주하였고, 한 해를 보내며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음악으로 대신 전하고자 했습니다. 2회의 연주 동안 약 100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참여해 주셨고, 모두 다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연주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매 연주회 때마다 관객분들께서 전해주시는 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힐링하고 갑니다.,” “너무 황홀한 연주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연주자들을 모시고 오냐,”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자들 숨소리까지 다 들려서 너무 좋았다.” 등등 연주에 대해 좋은 평가와 연주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음악회 당시 제가 해설했던 내용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함께 한 연주자 선생님들께서도 관객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고 큰 환호로 맞아주셔서 더 몰입할 수 있었고 더 신나게 연주할 수 있었다,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자로서, 같이 연주한 동료로서 저에게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Q4

사업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은 예술가들과 많은 작업을 잘 준비하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소통 프로그램으로 음악회를 진행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정돈된 공연장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음악회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들이 정말 많았는데 관객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과 연주자들 모두 그런 환경보다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음악에 집중해 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쉬움이 크고,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음악회를 열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드니 이별’이라는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예술가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어 준 반딧불이 감사해요!!!

🏠 망양1호점 - 문혜정, 박민경

입주예술가명 문혜정, 박민경

장르 섬유미술

모임주제 주민소통 프로그램 스테인드글라스 기법을 활용한 유리공예, 인테리어 소품 마크라메 만들기, 헌옷을 새옷으로-염색, 리플롬판화 제작하기, 북바인딩으로 나만의 책 만들기

Q1

작가 소개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서구 닻밭골 빈집활용 창작공간 입주 예술가인 문혜정과 협력작가인 박민경은 둘 다 섬유미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혜정 작가는 아트퀼트, 박민경 작가는 타피스트리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섬유라는 공통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섬유는 유연하고 가변성이 뛰어나 표현력이 탁월한 소재이며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 강직하기도 합니다. 둘은 이러한 섬유의 본질적인 면을 사랑하며 고정된 사고와 경직된 작업방식을 경계하고 새로운 표현방식과 포용력 있는 작업을 해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나 단체전, 호텔페어 등 혼자서는 힘든 작업들을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하기도 하지만, 각자 개인전이 있을 때면 나머지 일들을 도맡아 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빈집활용 창작공간에서 최대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며 힘겹고도 즐거운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2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로 교차되도록 진행해 시민들이 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다음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수업이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크라메를 만들어 다음 프로그램인 염색 수업에서 제작한 마크라메를 직접 염색해 본다든지, 리플롬 판화 제작 수업 후 제작한 판화를 북바인딩 수업 때 만든 책에 잉크를 묻혀 찍어본다든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시민들의 참여가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예술의 영역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실생활에서도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강생들은 마크라메의 원사 그대로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염색을 한 후 산뜻한 새로움을 얻게 되는 과정, 직접 만든 물고기 판화나 깃털 판화를 찍은 책을 간직하게 되는 경험에 대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 물감으로 그린 각자의 컵에 음료를 따라 마시고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한 티셔츠를 입는 일 또한 남다른 기쁨일 것입니다.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번 여름의 장마는 지독했습니다. 입주한 이후 가장 많은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잘 된 공간임에도 천장에서 비가 새어 들어와 물딩이 떨어지고 바닥이 젖고 벽지가 부풀었습니다. 마당이 비바다가 되어 발목까지 잠기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첫 프로그램 때부터 수강생들과 의기투합해 함께 계획했던 마당 삼겹살 파티가 자꾸 미뤄지다 기어이 무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후위기 때문에 실생활이 위협받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작년에 마당 화단에 마구 뿌렸지만 척박한 토양 탓에 몇 개의 싹만 나고 말았던 상추가 올해는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싹이 나서 모진 비에도 불구하고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수강생들이 한 봉지씩 뜯어가도 금방 무성해져 이웃에도 나눔을 했을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년 만에 저절로 비옥해진 토양이, 매일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푸성귀가 자꾸 무성해지는 것이, 그래서 빈집활용 창작공간을 찾는 누군가에게 별것 아닌 듯 특별한 그것을 한아름씩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어쩐지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생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Q4

사업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올해 프로젝트는 다양하게 준비했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구차하겠고 반성을 하자면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입주한 첫 해 서구 닻밭골 빈집활용 창작공간 바로 앞으로 순환도로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업실 바로 앞에 차도가 들어선다니, 주위에 하나둘 빈집이 늘어나자 어딘지 쓸쓸하고 무서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철거와 정비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끄럽고 불편해졌고, 공사 분진이 일었고 단수가 잦아졌으며 통행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었고 내년에 다시 시작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통행로의 일부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보니 내년에는 시민들과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커뮤니티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 뒷집 할머니가 길에서 나를 붙들고 늙은이가 혼자 있는데 궁금하지도 않냐고, 집에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초대인지 위문 요청인지 모르겠지만 바쁜 중에 시간을 내봐야 하나 갈등하는 중입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새댁'이라고 부르며 젊은 사람이 이 동네에 살러 들어왔다고 무조건 이쁘다고 해주셨던 분입니다.

연말이면 한해의 반성과 새해의 계획으로 매년 비장해지곤 하지만, 내년의 일은 내년의 나에게 맡기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창작공간의 대청소부터!

8 홍티1호점 - 홍지혜

입주예술가명	홍지혜	장르	시각(설치)
모임주제	창작활동지원 sensible_unsensible 주민소통 프로그램 그림엽서릴레이		

Q1

작가 소개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개념위의 설치미술작업을 하는 홍지혜입니다. 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안과 밖, 의미와 무의미 등 대립적인 이항 사이의 부분을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사이라는 부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분으로, 불안을 야기하거나 쉽게 간과되는 등 명료하지 않고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2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주민소통 프로그램으로 그림엽서 릴레이와, 'sensible_unsensible'이라는 전시명으로 홍티끄티에서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림엽서릴레이는 '나'에 대한 '나의 표현', 그리고 '나의 표현'을 보고 나서 '남'이 표현하는 '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인 말과 텍스트가 아니라 미술로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며, '한 해(2023년)의 마무리'라는 프로그램 기간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과 새롭게 만들어갈 시간의 사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홍티끄티에서 진행한 전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위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규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탐색과 사이에 대한 관찰들로 작업하였습니다. 캡션, 관람방식, 전시방식은 기존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시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부분으로 보았으며, 텍스트가 없는 전시로 진행하였습니다.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림엽서 릴레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아버지 나이의대의 참여자께서 처음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조심스러워서 스케치북에 연습하셨습니다. 스케치북에 연습해도 조심스러워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서 찢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셔서 바로 엽서에 그림을 옮기고, '내가 생각하는 나' 엽서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엽서를 다시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감이 생겨서 자화자찬하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술이 주는 순기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유롭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소하는 것 같아서 한 해 마무리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고마워하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더불어 홍티끄티로 전시를 관람하러 오시는 동네주민께서 전시장 외부에서 "이게 무슨 전시냐. 이쁜 그림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설치미술 전시에 대한 설명과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티마를 동네주민들 중 대다수가 노인분들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게 느껴졌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Q4

사업을 진행하시며 느끼셨던 생각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통 프로그램과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관람객 분들이 연계프로그램까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컸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전시 또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오는 주민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림엽서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인 참여자들도 있었고 소극적인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묵묵하게 작업만 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빈집활용 사업이 처음엔 조금 낯선 느낌도 있었지만 계속 지내면서 이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라오기가 힘든 지역이어서 처음엔 아무도 없을까 조마조마했었는데 생각보다 참여가 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뿌듯한 느낌도 들고 좀 더 개발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더 자주 주민친화적인 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3-5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사업소개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부산의 삶, 예술로 기억하다>는 부산예술인의 생애 및 작품세계 아카이빙을 통하여 부산 예술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아카이빙 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부산예술의 위상제고 및 자산화 추진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로 예술인 아카이빙 사업 및 수집된 아카이빙 자료의 예술 콘텐츠 생산 및 지역적 활용방안을 모색합니다.

연구방향

1단계	작고 예술인 / 원로 예술인(연 1~3명) 아카이빙 자료 생산 <부산 예술인 아카이빙 사업 예술인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아카이빙 연구대상 최종선정
2단계	1단계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전시, 공연, 굿즈제작 등)
3단계	아카이빙 자료 보관 및 공유를 위한 수장고·온라인 플랫폼 구축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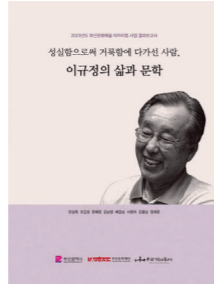
아카이빙 연구 결과물	- 예술가의 연보 및 활동이력 정리 - 문헌자료(도록, 발간물, 비평, 논문, 기사자료 등) 목록 및 전문 - 예술활동 참고자료(표지 등)정리 - 예술가와 관련된 기존 영상, 녹취 등 리스트 정리 - 창작 활동 결과물 정리(악보, 대본, 작품집 등 고화질 촬영) - 연구 대상 인물과 관련된 인문들의 구술·채록 정리, 그 외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 정리
영상물 제작	예술가의 구술·채록 영상촬영 및 편집, 연구 대상인물의 창작활동 이해 가능한 영상 제작
관련자료 수집	향후 수장고 저장 및 전시 예정
세미나 개최	연구대상 아카이빙 자료 바탕, 학술적 연구토대 마련을 위한 세미나 운영

사업성과

연구년도	작고예술인	원로예술인
2020년	윤정규(소설가), 허영길(연극연출가)	제갈삼(피아니스트)
2021년	황무봉(전통무용), 이상근(작곡가)	허만하(시인)
2022년	김석출(전통예술), 송혜수(화가)	조속자(무용가)
2023년	이규정(소설가), 최민식(사진작가)	-

2023년 2명 인물 연구/ 총 4년간 11명 연구 완료

연구대상 및 연구단체



연구대상	故이규정(소설가)	故최민식(사진작가)
연구단체	부산작가회의 이규정 아카이빙 연구팀	수요일



故이규정 소설가
경남 함안 출생,
1937~2018.4.13.

- 경북대학교, 동아대학교 대학원 현대문학 석사
- 신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년퇴임
- 작품집 / 장편 『먼땅 가까운 하늘』(1996), [사할린](2017)
- 소설집 『부처님의 멀미』(1997), 『퇴출시대』(2000), 『멀고도 먼길』(2006), 『치우』(2013)
- 주요저서 / [현대소설의 이론과 기법](1998), [소설, 이렇게 쓰라](1999), [한국현대문학사](공저, 2000)
- 한국작가회의 고문 역임, 부산작가회의 고문 역임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역임
- 1986, 일본문학상 소설부문 / 1988, 부산시문화상 문학부문 / 2001, 한국 카톨릭문학상 / 2002, 제19회 요산문학상 / 2014, 향파 이주홍문학상



故최민식 사진작가,수필가
황해도 연안 출생,
1928.3.6.~ 2013.2.12.

- 동경중앙미술학원 졸업
- 1962~1987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20여개국 사진 공모전에서 220점 입상
- 1970~1986 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13회 개인 초청전
- 1968 사진집 '인간'1집 발간(인간 1~14집), 산문집 30여권 발간
- 국가기록원 '민간기증 기록물 1호' 지정
- 20여 개국 공모전에서 200여 점 입상
-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1996. 백조사진문화상 / 2000. 옥관문화훈장 / 2005. 동강사진상 / 2008. 국민포장 / 2009. 부산문화대상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2차 콘텐츠 제작 <이상근 오페라 작곡집 (부산성 사람들)>

2021년 연구대상인 故이상근 작곡가의 미발간 친필악보 작곡집 <부산성 사람들(1985)> 발간,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사업 세미나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과 2차 콘텐츠화>

내용

부산문화예술의 아카이빙 및 2차 콘텐츠화 현황 진단, 과제 도출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을 모색하고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23. 11. 30.(목) 14:00~17:00,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사업일정

구분	진행시간	주요내용
개회	14:00~14:05(5)	개회선언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제]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과 2차 콘텐츠화	14:05~14:25(20)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의 과제와 전망 김두진(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14:25~14:45(20)	이상근 <부산성 사람들>(1985)의 의미 하순봉(작곡가)
	14:45~15:05(20)	작곡가 이상근과 부산예술인 아카이브 활용방안 남영희(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문화와영상매체 협동과정 강사)
	15:05~15:25(20)	문화예술인 아카이브 사례연구-허만하 아카이빙 사업을 중심으로 황선열(문학평론가, 전 부산작가회의 회장)
축하공연	15:35~15:55(20)	이상근 작곡가 미발간 작곡집 출판기념 공연 소프라노 강수진, 앙상블 원잇 (지휘: 하순봉)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16:50(50)	(좌장) 이순욱(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 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교수)
		(토론자) 오광수(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원명(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하은지(부산근현대역사관 학예연구사) 임언미(대구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기록팀장)
		방청객 질의
폐회	16:50~16:55(5)	폐회선언

홍보물 및 진행사진



4

언론보도



언론보도

NEWS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언론보도 현황

연합뉴스 2023.02.20.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부산문화재단, 사업 대상지 모집

cnbNEWS 2023.02.20.
부산문화재단, 예술가들 등지 되어 줄
유희공간 찾는다

부산일보 2023.02.20.
“놀리는 빈집, 예술가 창작활동
공간으로 제공해 주세요!”

NEWS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언론보도 현황

cnbNEWS 2023.03.22.
부산문화재단,
아카이빙사업 연구팀 모집

news 1 KOREA 2023.03.23.
부산문화재단, 고 이규정·고 최민식
아카이빙 연구팀 모집

연합뉴스 2023.03.23.
부산문화재단, 고 이규정·고 최민식
아카이빙 연구팀 모집

부산일보 2023.03.26.
고 이규정 소설가·고 최민식 사진작가
아카이빙 추진

국제신문 2023.12.05.
“문화예술 아카이빙은 공공영역...
오프라인 기록관 함께 서야”

국제신문 2023.12.12.
“부산 작곡가 이상근 아카이브...
공연·교육 활용법 고민을”

NEWS 행복플랫폼 언론보도 현황

cnbNEWS 2023.05.23.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서 일대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누린다

연합뉴스 2023.05.24.
부산문화재단, 예술가들 등지 되어 줄
유희공간 찾는다

공감언론뉴스 NEWSIS 2023.05.29.
“놀리는 빈집, 예술가 창작활동
공간으로 제공해 주세요!”

NEWS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언론보도 현황

cnbNEWS 2023.03.08
부산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추진...“기업기관예술인 모집”

공감언론뉴스 NEWSIS 2023.03.11.
부산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공모

cnbNEWS 2023.04.20.
부산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매칭데이’ 개최

공감언론뉴스 NEWSIS 2023.04.20.
부산문화재단, 기업-예술인 잇는
‘매칭데이’...오는 24일

부산일보 2023.04.21.
부산문화재단, 24일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매칭데이’ 개최

공감언론뉴스 NEWSIS 2023.11.22.
부산문화재단, 예술인파견사업
결과 공유회 개최

NEWS 부산형 예술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 언론보도 현황

cnbNEWS 2023.05.23.
부산문화재단, 지역 예비예술인 위한
무대 ‘BPAM RISING ARTISTS’ 마련

공감언론뉴스 NEWSIS 2023.05.24.
부산지역 예술대 학생들 14~15일
가온아트홀·시민회관서 공연

부산일보 2023.05.29.
[2023 BPAM] 해외 유통 첫 사례
나왔다

5

오시는 길



주소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부산문화재단 1층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교통편 **자가용 이용시**
네비게이션에 '부산문화재단', '감만우체국' 검색

버스 이용시
시내 23번, 시내 168번 서면, 범일동 방면에서 승차 후 감만창의문화촌 하차
시내 26번, 시내 101번 남포동, 부산역 방면에서 승차 후 감만창의문화촌 하차
마을버스 남구 6번홈플러스 또는 감만시장 정류장 하차

지하철 이용시
1호선 범일역 2번 출구 → 범일동국민은행정류소 → 23번 승차 → 감만창의문화촌 하차
2호선 못골역 1번, 3번 출구 → 1번, 3번 출구 사이에서 위치한 마을버스 정류장 하차 → 마을
버스 남구 6번 승차 → 홈플러스 또는 감만시장 정류장 하차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bawsc.bsfc.or.kr/>



**2023년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결과자료집**

(재)부산문화재단 2023-22호

발행일

2023년 12월

기획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발행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번지(감만동)
T. 051-745-7239
F. 051-745-7708
E. bscfcenter@bscf.or.kr

기획 및 편집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예술지원팀) 팀장 송수경
팀원 김희선, 최서원, 유승애

디자인 및 제작

브랜드어스(0507-0177-0422)